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서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맞이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9월 18일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는 문재인대통령을 평양국제비행장에서 따뜻이 맞이하시였다.

우리 민족의 조국통일사에 또 하나의 새로운 장을 아로새기게 될 북남수뇌상봉은 력사적인 판문점선언과 우리 민족끼리의 정신에 기초하여 북남관계의 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데서 중대한 계기로 된다.

비행장에는 수많은 평양시민들이 공화국기와 통일기, 꽃다발을 들고 나와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군중들은 뜨거운 민족애와 포용력으로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위업실현에서 새로운 전환적국면을 열어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을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리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



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김영철,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리용호 외무상,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김수길 육군대장, 인민무력상인 노광철육군대장, 김능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리선련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비행장에 나와있었다.

오전 10시,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평양국제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를 맞이하시였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근 4개월만에 또다시 상봉하게 된 기쁨을 나누시며 뜨겁게 포용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열렬히 환영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1 면 에서 계속)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국무위원장께서 몸소 비행장에까지 나오시어 따뜻이 맞이해주신데 대해 깊은 사의를 표시하였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에게 학생소년들이 꽃다발을 드렸다.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공식수행원들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천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충천 청와대 의전

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 특별수행원들인 각계인사들과 기자들이 왔다.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함께 문재인대통령은 21발의 폐포가 울리는 속에 조선인민군 군중명예위병대를 사열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사열대에 오르시어 조선인민군 군중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을 보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과 함께 문재인대통령은 군중들의 앞을 지나며 열렬한 환영에 답례를 보내었다.

문재인대통령이 탄 차는 모터제쿨의 호위를 받으며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으로 향하였다.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연도에서 10만여명의 시민들이 동포애의 정을 안고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런못동입구에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무개차에 옮겨타시었다.

북남수뇌분들을 모신 차가 런못동입구를 떠나 룡흥네거리와 려명거리를 지나는 연도에서 군중들은 《조국통일》, 《평화》, 《번영》이라고 웨치고 공화국기와 통일기, 꽃다발을 흔들며 열광적인 환호를 올리었다.

4.25문화회관광장을 비롯한 거리의 곳곳에 짝 들

어찬 군중들, 살림집창가들에서 손을 흔들며 반기는 시민들의 환영열기는 더욱 달아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환호하는 군중들에게 손저어 주시었다.

북남수뇌분들께서 타신 무개차는 환영의 연도를 지나 백화원영빈관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리실주너사와 함께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를 숙소에 안내하시었다.

백화원영빈관 종업원들은 문재인대통령내외분에게 꽃다발을 드리고 열렬히 환영하였다.

본사기자



제 5 차 북 남 수 뇌 회 답 진 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사이에 회답이 있었다



역사적인 제5차 북남수뇌회담이 9월 18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회담을 진행하시었다.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 부장이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 본부청사를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따듯이 맞이하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회담에 앞서 문재인대통령은 역사적인 평양 북남수뇌상봉을 기념하여 조선로동당 본부청사 방명록에 《평화와 번영으로 겨레의 마음은

하나! 2018. 9. 18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글을 남기었다.

회담에서는 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기 위한 여러가지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교환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올해에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두차례의 상봉

과 회담이후 긍정적으로 훌륭하게 발전하고 있는 현 북남관계상황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호상 관심사로 되고있는 중요문제들에 관한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누시었다.

회담은 진실하고 호상 리해의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문재인대통령의 부인이 옥류아동병원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 동행하시었다

문재인대통령의 부인 김정숙녀사와 일부 수행원들이 9월 18일 옥류아동병원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을 참관하였다.

존경하는 리설주녀사께서는 박태성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과 함께 옥류아동

병원과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에서 문재인대통령 부인과 일행을 따듯이 맞이하고 동행하시었다.

병원 의료일군들과 대학 교직원, 학생들이 문재인대통령 부인과 일행을 동포애의 정으로 환영

하였다.

김정숙녀사는 옥류아동병원의 회복치료실, 소학교학습실 등을 돌아보면서 치료받기 위해 온 어린이들과 어머니들을 만나 담소도 나누었다.

김정숙녀사와 일행은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의 성악학부 강의실을 비롯한 여러곳을 돌아보았으며 음악당에서 대학관현악단의 공연을 관람하였다.

본사기자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예술공연 진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하고 있는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예술공연이 9월 18일에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평양대극장앞에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을 따듯이 맞이하시었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에게 녀성예술인들이 꽃다발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극장 특별관람석에 나오시자 전체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은 열광의 환호를 터쳐올리었다.

공연관람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남측인사들이 초대되었다.

리수용,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평양시안의 일군들, 근로자들이 공연을 관람하였다.

서곡 《반갑습니다》의 노래선물이 울리는 속에 소개자가 남녘의 동포들을 반갑게 맞는 우리 인민들

의 뜨거운 마음을 담아 성의껏 준비한 환영공연의 시작을 알리었다.

출연자들은 가야금을 위한 관현악 《아리랑》, 남성독창 《동무생각》, 현악중주와 노래 《새별》을 비롯하여 온 겨레의 한결같은 통일열망과 민족적향취가 차넘치는 종무들을 아름다운 선율과 세련된 춤물등으로 펼쳐보이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널리 애창되고있는 가요들과 세계명곡들이 환영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자랑하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환희로운 음악세계로 펼쳐지는 무대에 경음악 《내 나라 제일로 좋아》, 가무 《달려가자 미래로》가 올라 공연분위기를 한층 돋구었다.

장내를 민족화합의 후더운 열기로 달아오르게 한 공연은 관람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이 끝나자 또다시 열광의 환호가 터쳐올랐다. 출연자들에게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의 명의로 된 꽃바구니가 전달되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무대에 오르시어 출연자들의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었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은 자기들을 극진히 맞아주고 훌륭한 공연을 마련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시하시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문재인대통령의 평양방문을 환영하여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9월 18일 역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성대한 연회를 마련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연회장인 목란관 홀에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를 따듯이 맞이하시었다.

연회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중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을 비롯한 남측수행원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과 김영철,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인민무력상인 노광철륙군대장,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능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조선로동당과 정부, 군대의 간부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연회장에 나오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환영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 남측인사들을 꽃피는 봄계절에 이어 풍요한 가을에 또다시 만나게 된 반가운 심정을 표명하시면서 대통령내외분의 평양방문을 열렬히 환영하시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답례연설을 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김정은위원장께서 가을이 오면 다시 만나자고 하신 약속을 잊지 않으시고 평양에 초청 해주시였으며 극진히 환대해주신데 대한 감사의 정을 표시하였다.

연회는 시종 화기에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의 숙소를 방문하시고 제2일 회담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9일 문재인대통령의 숙소인 백화원영빈관을 방문하시고 제2일 회담을 하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는 숙소를 방문하시어 문재인대통령내외를 만나 따뜻한 인사를 하시고 환담을 나누셨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제2일 회담을 하셨습니다. 회담에는 북측에서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이 참가하였다.

회담에서는 역사적인 판문점선언을 정확히 리행해나가려는 쌍방의 의지를 다시금 확인하고 그를 실행해나가는데서 견지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과 구체적인 대책안들을 정립하였으며 북과 남이 당면하게 취할 몇가지 실천적조치들에 대하여 합의

하였다.

김정은원수님과 문재인대통령은 서로 마음과 뜻을 합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신뢰하는 립장과 자세를 가지고 성실하게 노력함으로써 적대와 대결이 극화되던 북남관계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키고 놀라운 변화와 결실들을 이룩한 귀중한 성과와 경험에 토대하여 앞으로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에 부응하고 오늘의 관계발전을 확고하게 담보하는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가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진지하게 의논하시었다.

올해에 들어와 새차례에 걸쳐 진행된 북과 남의 최고수뇌분들의 상봉과 회담은 불신과 분쟁으로 일관하던 과거의 낡은 타성에서 벗어나 신의와 협력으로 문제를 타결하는 새로운 대화의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오랜 대결과 단절의 시대에서 대화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놓은 역사적전환점으로 된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9월 19일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시었다.

서명식에는 북측에서 김영철,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인민무력상인 노광철륙군 대장,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이 참가하였다.

남측에서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영준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이 《9월평양공동선언》에 서명하시자 참가

자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리쳐올리었다.

북남수뇌분들께서는 선언문을 교환하시고 《9월평양공동선언》의 탄생을 축하하여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역사적인 《9월평양공동선언》은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향과 요구에 맞게 4.27판문점선언을 전면적으로 충실히 리행하여 북남관계발전을 더욱 가속화하며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중요한 리징표로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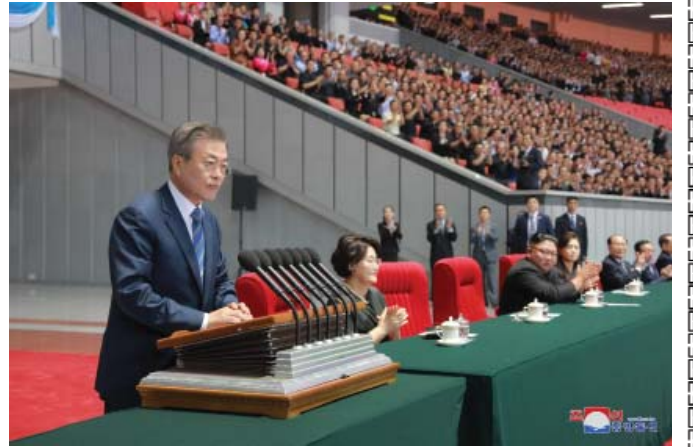
이어 역사적인 판문점선언리행을 위한 북남군사분야의 합의서가 조인되었다.

북측에서 인민무력상인 노광철륙군대장이, 남측에서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9월 19일 5월1일경기장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관람하시었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함께 주석단관람석에 나오시었다. 전체 관람자들은 민족의 화해단합과 평화번영의 새시대를 펼치시어 겨레의 가슴마다에 새로운 희망과 활력을 부여주시는 북남수뇌분들을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 문재인대통령 내외분에게 어린이들이 향기그윽한 꽃다발을 드리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인 김영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철, 리수용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들, 리용호 외무상, 인민무력상인 노광철북군대장,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김능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서기국장 겸 의장이 주석단에 나왔다.

또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과 여러 정당 대표들을 비롯한 남측의 주요수행원들이 주석단에 초대되었다.



남측의 수행원들과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무관들, 외국손님들이 공연관람에 초대되었다. 성, 중앙기관을 비롯한 평양시안의 일꾼들, 근로자들, 청년학생들과 체류중 해외동포들이 공연을 함께 보았다.

우리 민족의 역사와 문화에 깊은 자욱을 새긴 《아리랑》의 노래선율이 울리는 속에 대통일기가 게양되었다.

경기장바닥에는 《백두》, 《한나》의 글발이 새겨지고 환영의 꽃물결, 춤바다가 설레이었다. 출연자들은 아름답고 우아한 물동과 기백있는 체조, 흥취나는 민족적정서와 예술적기교, 천변만화



하는 대규모의 배경대화곡으로 훌륭한 공연을 펼치었다.

반만년의 유구한 세월 한강토에서 한피줄을 이으며 찬란한 문화를 꽃피워온 우리 민족의 화합을 넘원하는 북과 남의 뜨거운 마음들이 분출되는 장내에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을 위하여 평양을 방문한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특별장이 펼쳐졌다.

우리 민족끼리 뜻과 힘을 합쳐 통일의 새시대를 열어어나가는 력사의 출발선에 들어선 뜻깊은 판문점 상봉의 순간순간들을 수록한 특화편집물이 4.27의 거대한 의의를 다시금 새겨주는 속에 경기장에는 삼천리강토에 세차게 태동하는 민족적화해와 단합의 기운이 더욱 차넘치었다.

북과 남이 함께 손잡고 평화와 번영의 대통로를 열어어나갈 때 이 땅우에 온 세계가 우리러보는 통일강국, 후손만대에 물려줄 하나된 조선을 일떠세울

수 있음을 감명깊게 보여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관람자들을 무한히 격동시켰다.

공연이 끝난 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뜻깊은 연설을 하시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문재인대통령과 만나 북남관계발전에서 새로운 리점표로 되는 또 하나의 결실을 만들어냈다고 하시면서 문재인대통령의 지칠줄 모르는 노력에 감사를 표시하시었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은 동포애의 정으로 자기들을 따듯이 맞추고 극진히 환대해준 평양시민들에게 진심어린 고마움의 인사를 전하면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평화적미래를 앞당겨나갈 의지를 피력하시었다.

북남수뇌분들께서 연설을 마치시자 또다시 《만세!》의 환호성이 터져오르고 경축의 축포가 9월의 밤하늘을 아름답게 장식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열광의 환호를 울리는 출연자들과 관람자들에게 따듯이 손저어주시며 공연성과를 축하하시었다.

북남수뇌분들을 모시고 진행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민족대단결의 위력으로 평화번영의 새 력사를 빛내어나갈 우리 인민과 온 겨레의 드림없는 지향과 의지를 잘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문재인대통령이 평양방문을 기념하여 식수

평양을 방문하고있는 문재인대통령이 19일 백화원에서 기념식수를 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인 최룡해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이 기념식수를 함께 하였다.

남측공식수행원들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기념식수에는 김능오 평양시당위원회 위원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장혁철 도지사, 김경준 국토환경보호상, 강영수 도시경영상, 차희림 평양시인민위원회 위원장, 시안의 근로자들과 학생소년들이 참가하였다. 식수에 앞서 문재인대통령이 모감주 나무를 떠오게 된 경위에 대하여 말하였다. 이어 문재인대통령이 최룡해부위원장과 함께 기념식수를 하였다. 《평양방문을 기념하여 2018.9.18-21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이라는 글발이 새겨진 표식비가 모감주나무옆에 세워졌다. 기념식수가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표식비와 모감주나무를 배경으로 사진을 찍었다.



본사기자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이 만수대창작사를 참관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이 19일 만수대창작사를 참관하였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을 비롯한 수행원들이 동행하였다.



창작사일꾼들, 종업원들이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을 동포애의 정으로 맞이하였다.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은 미술작품 전시관을 돌아보면서 조선화들과 대형고려청자기 등 국보적가치를 가지는 명작품들에 깊은 감동을 표시하였다.

문재인대통령은 감상록에 글을 남겼다.

이날 문재인대통령의 부인과 일부 수행원들은 만경대학생소년궁전의 여러 소조실들을 참관하고 예술소품공연을 관람하였다.

본사기자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삼천리강도를 한 지맥으로 안고 거연히 솟아 빛나는 민족의 성산 백두산이 반만년 민족사에 특기할 격동의 순간을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온 겨레와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북남수뇌회담을 성과적으로 마치고 9월 20일 오전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함께 백두산에 오르시였다.

북측 간부들과 남측수행원들이 함께 올랐다.

이 땅의 일만산악을 거스린 조종의 산 백두산은 하늘 높이 솟아오른 뒤편마다에 령묘한 정기를 내뿜으며 자기의 웅자를 한껏 드러내고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문재인대통령과 함께 백두련봉에서 제일 높은 장군봉마루에 서시여 웅건장중한 령봉들의 거창한 산악미와 거울처럼 맑고 푸른 천지호반의 장쾌한 전경, 민족의 혈맥인양 련련히 뻗어간 천리수해를 오래도록 부감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백두산정에 오른 력사의 순간을 기념하여 뜻깊은 사진을 찍으시였다.

남측수행원들도 백두산의 장엄한 모습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천지에 내려가시여 호반을 거니시며 백두산에 오른 소감을 나누시였다.

천지호반에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또다시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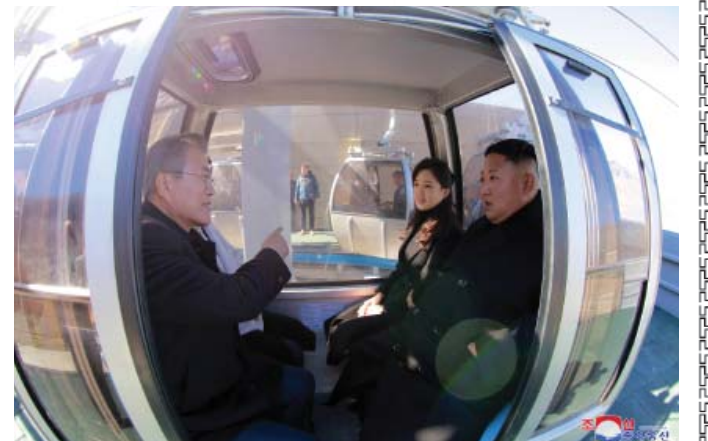
백두산의 장군봉과 천지호반에서는 북과 남의 인사들이 서로 어울리며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모습도 펼쳐졌다.

북남수뇌분들께서 민족의 상징인 백두산에 함께 오르시여 북남관계발전과 평화번영의 새시대에 뚜렷한 자욱을 아

문재인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넘과 기상이 어린 성산에 오른 감격을 피력하면서 오늘의 첫걸음이

온 겨레가 모두 찾는 새시대로 이어질것이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였다.

로새기신것은 민족사에 특기할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본사기자



문재인대통령과 일행 삼지연에 도착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을 삼지연비행장에서 맞이하시였다

은 거례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민족의 성산 백두산탐승을 위해 9월 20일 삼지연에 도착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녀사와 함께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을 맞이하기 위하여 삼지연비행장에 나오시였다.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상인 노광철륙군대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리상원 량강도당위원회 위원장, 리성국 량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비행장에 나왔다.

오전 8시 15분,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태운 비행기가 삼지연비행장에 착륙하였다.

환영곡이 울리는 가운데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숙녀사와 반가운 인사를 나누시였다.

남측공식수행원들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김재현 산림청 청장, 주영훈 청와대 경호처 처장, 김현철 청와대 경제보좌관, 김종천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실장,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과 특별수행원들인 각계인사들이 함께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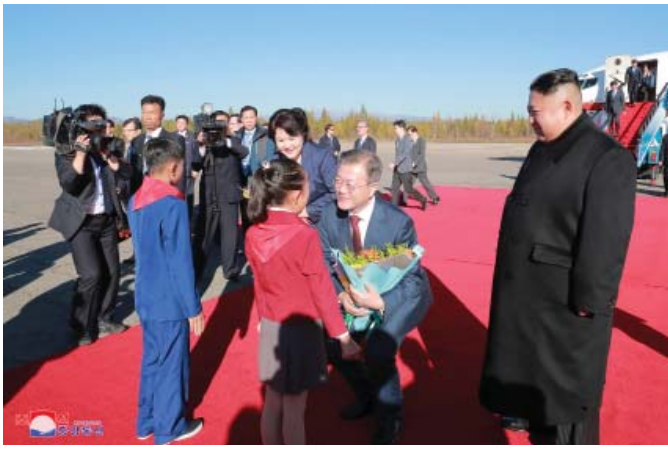
문재인대통령과 부인에게 학생소년들이 꽃다발을 드리였다.

문재인대통령을 환영하는 의식이 진행되였다.

삼지연군인민들이 문재인대통령과 일행을 열렬히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과 부인, 수행원들과 함께 백두산을 향하여 출발하시였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을 위해 삼지연에서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을 위해 9월 20일 삼지연못가에서 오찬을 마련하시였다.

오찬에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 실장, 서훈 국가정보원 원장, 조명균 통일부 장관, 송영무 국방부 장관, 강경화 외교부 장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김재현 산림청 청장 등 남측수행원들이 초대되였다.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인민무력상인 노광철륙군대장, 김여정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북측 간부들이 여기에 참가

하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오찬회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열광적인 박수로 맞이하였다.

오찬은 동포애적이며 따뜻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였다.

오찬에 앞서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사께서는 문재인대통령내외분과 함께 삼지연못가를 배경으로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문재인대통령은 백두산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삼지연의 못가에서 산책하시며 환담을 나누시였다.

본사기자





문재인대통령과 일행 삼지연을 출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삼지연비행장에서 문재인대통령을 배려주시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력사적인 북남수뇌상봉과 회담을 성과적으로 마
치고 귀로에 오르는 문재인대통령과 작별하시
었다.
9월 20일 오후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님께서 삼지연비행장에서 문재인대통령내
외분을 맞이하시었다.
김영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인민

무력상인 노광철륙군대장,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
원회 위원장, 리상원 량강도당위원회 위원장, 리
성국 량강도인민위원회 위원장이 비행장에 나와
있었다.
문재인대통령을 환송하는 의식이 진행되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과 함께
문재인대통령은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를 사열
하였다.

문재인대통령내외분에게 녀성근로자들이 꽃다발
을 드리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문재인대통령과 뜨거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시었다.
삼지연군인민들의 열렬한 환송을 받으며 문재인
대통령과 일행은 비행기에 올랐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와
리설주녀님께서 문재인대통령내외분을 따듯이

배려주시었다.
북남수뇌분들의 력사적인 9월평양상봉과 회담
은 북과 남이 손잡고 마련한 귀중한 성과들을 더
욱 공고히 하며 북남관계를 새로운 평화의 궤도,
화해협력의 궤도에서 가속적으로 발전시켜 통일
대업의 전성기를 열어나가는데서 획기적전환점으
로 되었다.
본사기자